

익산시, 농업수도 건설 올인

정현을 시장, 농금융 방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첫 발 정부 2차 이전 계획가시화... T/F팀 구성 등 선제적 대응

익산시가 수도권에 위치한 농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나서며 농업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25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농업정책보합금융원(이하 농금융)을 방문해 민연태 원장을 면담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를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면담에서 지역의 최대 강

점인 KTX 익산역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접근성 및 우수한 정주여건,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관련 기관 이전의 당위성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등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향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세부 대응 전략(안)을 구상·미련해 유치를 나설 예정이다.

농금융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 보험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

도연구, 사업관리·점검 등 정책금융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장 1명, 정규직 72명을 포함하여 88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농금융 방문을 통해 지역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부서별 유치계획 등을 보완, 강화하고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등 익산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5개 분야의 전담 활동 팀이 유치 논리를 공유하고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 23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현장활동 상시 마스크 착용할 것”

전미희 익산소방서장, 비대면 영상회의 주제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 23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방역지침 준수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7개 센터, 1개의 구조대와 관서장실에서 각각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전 서장은 ▲현장활동 등 상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 준수 ▲최근 의료진 파업과 관련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병원 상황 모니터링 등을 지시했다.

또 제8호 태풍 ‘비비’가 28일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민의 불편감 최소화를 위한 소방력 적극 지원과 현장활동 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수난·구조 장비 점검 등 가용자원을 100% 활용해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각 관할 별로 침습 및 지반 침식 우려 대상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와 태풍 경보 발령 등 비상사태는 전직원 경계근무를 통한 신속한 긴급구조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전미희 서장은 “최근 잇단 재해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재난에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 차단하라”

관내 유동인구 많은 장소 등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진행

군산시가 지역내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25일 최근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내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임준 군산시장과 간부 공무원 27개 읍면동의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자생단체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읍면동 관내의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수도권 지역 방문 자제를 부탁했으며, 관련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알렸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

정명령 시행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안내했다.

이날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 일원에서 캠페인에 참여한 김임준 군산시장은 “중대피를 맞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군산시, 1인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호응

군산시의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과정이 소폭 증대와 다양한 마케팅 강화 등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농, 품목별 연구회원, 정보화연구회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농업 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에서 1인미디어 생방송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 영상 촬영·기획부터 편집, 유튜브 채널 개설, 작품 업로드까지 전 과정에 농업인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과정중 오전반은 만 18세 이상~만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오후반은 품목별 연구회원 및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매체 활용도에 따라 대상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지난 7월 2일에 시작해 지난 20일까지 총 8주간 13회 실시됐다.

청년농업인들은 자기 농장 및 농산물 재배과정과 더불어 청년이 농촌에서 겪는 불편함, 가족농으로서 부모님과의 역할분담, 군산 관광지 홍보 등 도시민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구독자들이 농업·농촌에 친숙해질 수 있는 방송을 진행 중이다. 품목별 연구회원 및 소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에서 1인미디어 생방송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대표들은 본인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판매하며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영상 제작 교육을 진행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익산형 뉴딜’ 신규사업 발굴 잔결음

한국판 뉴딜 선제적 대응나서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익산형 뉴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시장 주재로 익산형 뉴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다.

신규사업 발굴에는 전 부서가 참여하며 보고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지역 미래산업과 한국판 뉴딜사업을 융합한 사업 또는 현재 제도나 시스템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미래혁신 성장 동력인 홀로그래프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도시재생사업, 환경친화도시사업 등이 한국판 뉴딜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구조적 변화에 따라 마을전 자상거래와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개발하고 전통 서비스업과 제조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언택트 산업도 집중 발굴한다.

강태순 기획행정국장은 “익산시가 한국판 뉴딜사업 선도 지자체로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익산형 뉴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발굴된 뉴딜 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구체화하고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의회운영위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익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연)는 25일 회의를 통해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30회 임시회가 당초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의 일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및 신속한 현장 대응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의사일정을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및 참석직원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제230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9월 2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농업정책 대응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군산시의 농업정책이 농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에서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정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 마을이 텅텅 비는 공동화의 어려움을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갖고 있으며, 1,0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가이고, 연 60만원을 지급받는 다. 군산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동안 신청 접수를 받아 지난 7월까지 자격검증을 거쳐 7,500여명을 선정했으며, 9월 추석 전에 각 지역농협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산=한영봉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